

쇼팽의 14개 왈츠에 나타나는 조바꿈 연구

조 치 노*

< 목 차 >

- | | |
|----------------|--------------------------|
| I. 시작하면서 | 3. 탄이름 한소리적 조바꿈 |
| II. 쇼팽의 조바꿈 기법 | III. 14개 왈츠에 나타나는 조바꿈 형태 |
| 1. 온음계적 조바꿈 | IV. 끝내면서 |
| 2. 반음계적 조바꿈 | * 참고문헌 |

I. 시작하면서

쇼팽¹⁾의 음악 양식은 독특하고 특유한 개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듣거나 악보를 보면 쇼팽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즉각 감지할 수 있다. 흔히 피아노의 시인으로 추앙받는 쇼팽의 작품은 엄격한 다성부(polyphony)나 대위법에 의한 음악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한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다른 한 성부가 반주를 담당하는 호모포니(homophony) 양식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그는 호모포니 양식에 반음계적 화성을 사용하여 독특하고 시대를 앞선 화성 진행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성에 대한 쇼팽의 어법은 19세기 초에서 볼 때 비범한 것이었으며, 많은 후세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쇼팽의 음악적 매력은 선율과 화성에 있다. 그의 선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기악적이 아닌 성악적인 것으로 매력적이고 감각적이며 특히 절묘한 장식악구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쇼팽 자신만의 음악적 본질이다. 이러한 선율의 근원은 춤곡이나 노래에 있다. 마주르카(Mazurka), 왈츠(Waltz), 폴로네이즈(Polonaise)의 선율들

* 제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

1) 프레데릭 프랑스와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최고의 피아노 음악 작곡가

은 춤곡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의 선율은 서정적이며 규칙적으로 8마디의 악절을 형성한다.

그는 화성에 있어서도 쇼팽은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부속화음과 감7화음 등을 사용한 반음계적 화성 진행과 조바꿈, 변화음의 교묘한 사용으로 미묘한 화성적 색채를 보여준다. 특히 쇼팽은 조바꿈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의 조바꿈은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련된 울림을 표출한다. 그의 조바꿈은 상당히 자유롭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으로 부속화음과 감7화음, 그리고 증6화음들을 이용한 반음계적 조바꿈과 판이름한소리적 조바꿈은 그가 선호하는 조바꿈 방법으로, 이러한 기법은 바그너의 확장된 반음계 어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쇼팽의 음악에서 특정 화음에 의한 조바꿈 과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쇼팽의 작품 중 14개의 왈츠를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악곡들이 하나의 조성(調性)에서 어떠한 조바꿈의 방법으로 다른 조성으로 진행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쇼팽의 조바꿈 기법

악곡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다. 화성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선율에 변화를 주거나 리듬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재에 변화를 주는 것과는 달리 악곡을 구성하는 조성을 바꾸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악곡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성이 바뀌면 같은 선율이라 할지라도 전혀 새로운 신선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의 조(調, key)에서 다른 조로 옮겨가는 것을 조바꿈(轉調, Modulation)이라 한다²⁾. 조바꿈은 3화음이나 7화음 혹은 9화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에 따라 온음계적(全音階的, Diatonic)이나 반음계적(半音階的, Chromatic), 그리고 판이름 한소리적(異名同音的, Enharmonic) 조바꿈으로 분류된다.

2) 백병동, 『화성학』 (서울: 수문당, 1986). 74쪽.

쇼팽의 조바꿈은 동시대의 작곡가들에 비해 상당히 자유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그의 14개 왈츠에는 온음계적 조바꿈을 비롯하여 반음계적 조바꿈과 판이름 한소리적 조바꿈이 다양한 화음을 통해 나타난다. 온음계적 조바꿈은 주로 조성이 근친조(近親調, Related Key)³⁾의 범위 안에서 바뀔 때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공통 화음은 대부분 주3화음과 부3화음이다. 반음계적 조바꿈과 판이름 한소리적 조바꿈은 근친조 외의 조로 이동할 때에 사용되는데, 이용되는 화음은 대부분 딸림 7화음이나 때로는 감7화음과 증6화음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쇼팽의 왈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바꿈을 보여준다.

1. 온음계적 조바꿈(Diatonic Modulation)

온음계적 조바꿈이란 어느 조에서 새로운 조로 이동할 때 2개의 조 사이에 공통 화음(Pivot chord)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바꿈을 말한다. 쇼팽의 14개 왈츠에서 발견되는 온음계적 조바꿈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근친조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

어느 조에서 5도 위인 딸림조(Dominant key)로의 조바꿈 예는 <Ex. 1>에 나타난다. 마디 20에서 조성은 Ab 장조에서 Eb 장조로 이동하고 있는데, Ab 장조의 I 화음에 대한 공통 화음은 Eb 장조에서 IV 화음이 된다.

<Ex. 1> NO. 2 Op. 34-1

Ab: I IV V7 Eb: I IV V7 I

어느 조에서 4도 위인 버금딸림조(Subdominant key)로의 조바꿈은 <Ex. 2>에 나

3) 근친조는 어떤 조를 중심으로 5도 위의 딸림조, 5도 아래의 버금딸림조, 나란한조, 그리고 같은 으뜸음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킨다. 예를들어 C장조에 대한 근친조는 G장조(딸림조)와 F장조(버금딸림조), a단조, e단조, d단조(C, G, F장조의 나란한조), 그리고 C장조와 같은 으뜸음조인 c단조가 된다.

4) 어느 조와 어느 조 사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화음

타난다. Eb 장조의 악곡은 마디 21에서 Ab 장조로 이동하고 있는데, 원조의 I 화음에 대한 공통 화음은 Ab 장조에서 V 화음이 된다.

<Ex. 2>

NO. 1 Op. 18

13 *f* Eb; V₇ I V₇ X₇ O₇ ii i₄

17 *sf*

19 *p* V₇ I Ab; V₇ - ^{7b} - ₇ → I

나란한조(Relative key)로의 조바꿈 예는 <Ex. 3>에 나타난다. 악곡의 조성은 a단조와 C장조가 교대로 진행된다. 마디 36에서 a단조의 i 화음은 C장조에서 vi 화음이 공통 화음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마디 40에서 C장조의 vi 화음에 대한 a단조의 공통 화음은 i 화음이 된다.

<Ex. 3>

No. 3 Op. 34-2

33 a; V₇ i V₇ C; vi → V₇ I V₇ I a; i₄

36

41 → V₇ i V₇ C; i vi → i₇ V₇ I V₇ I vi

45

같은 으뜸음조(Parallel key)로의 조바꿈은 <Ex. 4>에 나타난다. 마디 58에서 e단조와 E장조는 동일한 형태의 V⁷화음을 공유한다.

<Ex. 4>

2. 반음계적 조바꿈(Chromatic Modulation)

반음계적 조바꿈이란 어느 한쪽 조(key) 또는 양쪽 조에서 반음계적으로 변화된 화음을 통해 이루어진다.⁵⁾ 다시 말해 원조의 어떤 화음에서 한 성부 이상이 반음계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조의 으뜸음계적 화음이나 변화 화음의 기능으로 진행시켜 조바꿈하는 것을 반음계적 조바꿈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으뜸음계적 조바꿈과 달리 원조와 새로운 조 사이에는 공통 화음 없이 곧바로 조바꿈 진행이 이루어진다.

반음계적 조바꿈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반음계적 조바꿈은 19세기 작곡가들 사이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개발되었는데, 쇼팽은 이러한 반음계적 조바꿈을 이용하여 19세기의 반음계적 화성을 개척한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쇼팽의 14개의 왈츠에서 발견되는 반음계적 조바꿈의 형태들은 근친조는 물론이고 2차 근친조⁶⁾나 그 이상의 원격조(遠隔調: Remoted key)⁷⁾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Ex. 5>는 반음계적 조바꿈에 의해 원격조와 2차 근친조로의 조바꿈을 보여준다. 악곡의 조성은 E^b 장조에서 E장조를 거쳐 F[#] 장조로 진행하는데, 마디 132의 g와 b 음, 마디 133의 g[#]과 b^b 음은 서로 반음계적 변화음으로 작용한다. 또한 마디

5) Willi Apel, *Harvard Dictionary of Music* (London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70), 536쪽.

6) 2차 근친조는 근친조의 범주에 들어가는 조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근친조들을 가리킨다.

7) 원격조는 원조에서 단2도나 증음정 또는 감음정의 거리로 떨어져있는 조성을 총칭한다.

136-137에서는 반음계적 변화가 e-e# 음으로 나타난다.

<Ex. 5> No. 8 Op. 64-3

130 133

p

137 140

cresc.

Chord symbols: Eb; V7, -, V7/vi, E; I, V7, I, -, 7b, F#; V7, I, V7, I, -, 7b, Ab; V7

반음계적 조바꿈은 증6화음을 이용하기도 한다. <Ex. 6>에서 Ab 장조의 악곡은 마디 121에서 a음을 토대로 한 증6화음인 독일 6화음(German 6th chord)을 통해 c 단조로 조바꿈되고 있다.

<Ex. 6> No. 5 Op. 42

117 121

mf

Chord symbols: Ab; V7, I, 7b, V7, c; Ge6, V7, I

<Ex. 7>은 증6화음의 또 다른 형태인 프랑스 6화음(French 6th chord)을 통한 반음계적 조바꿈을 보여준다. Db 장조의 조성은 마디 126에서 db음을 토대로 프랑스 6화음을 이용하여 F장조로 이동한다.

<Ex. 7>

No. 4 Op. 34-3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0

Db; I V7 I F; Fre V V7/V V7 I

3. 띠이름 한소리적 조바꿈(Enharmonic Modulation)

원조의 한 화음 중 한 음 이상을 띠이름 한소리로 다루어 그 화음이 새로운 조의 운음계적 또는 변성 화음으로 그 기능을 진행시켜 조바꿈되는 것을 띠이름 한소리적 조바꿈이라 한다.⁸⁾

쇼팽은 띠이름 한소리적 조바꿈을 즐겨 사용하였으나, 왈츠에서는 단 한 번 나타난다. <Ex. 8>은 왈츠 제7번의 제1부분(A)이 종지하고 제2부분(B)이 시작하는 곳이다. 조성은 c# 단조에서 Db장조로 이동하는데, 마디 64와 65의 으뜸화음 사이에는 서로 띠이름 한소리의 관계를 갖는다.

<Ex. 8>

No. 7 Op. 64-2

63 65

Piu lento

mf

c#; V7 I Db; I

Ⅲ. 14개 왈츠에 나타나는 조바꿈 형태

쇼팽은 1827년에서 1848년까지 21년 동안 21곡의 왈츠⁹⁾를 작곡하였으나, 자주 연주되고 있는 왈츠는 14개이다. 이 왈츠들은 제1번 Eb 장조 작품 18, 제2번 Ab 장

8) 한만섭, 이민수, 『화성학연구』 (서울: 삼호출판사, 1992), 405쪽.

조 작품 34-1, 제3번 a단조 작품 34-2, 제4번 F장조 작품 34-3, 제5번 Ab장조 작품 42, 제6번 Db장조 작품 64-1, 제7번 c#단조 작품 64-2, 제8번 Ab장조 작품 64-3, 제9번 Ab장조 작품 69-1, 제10번 bb단조 작품 69-2, 제11번 Gb장조 작품 70-1, 제12번 f단조 작품 70-2, 제13번 Db장조 작품 70-3, 제14번 e단조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다.¹⁰⁾

각각의 왈츠는 여러 개의 작은 왈츠들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16마디로 구성되고 있다. 작은 왈츠들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등장하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성격의 선율과 조성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제12번에서는 a,b의 2개의 작은 왈츠들만으로 악곡 전체를 이끌어 가는 반면, 제1번에서는 a,b,c,d,e,f,g의 7개 왈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된다. 각 왈츠들 사이에 발생하는 조바꿈 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번 화려한 대왈츠 Eb장조 작품 18

이 곡 전체는 <표1>과 같이 a, b, c, d, e, f, g의 7개의 왈츠들이 A-B-C-A-코다의 5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분은 2부 또는 3부 형식을 취한다.

<표1> 화려한 대왈츠 Eb장조 작품 18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서 주 부 | 1-4 | Eb 장조 |
| 제1부분 (A) | a | 5-21 |
| | b | 22-37 |
| | a | 38-53 |
| | b | 54-69 |
| 제2부분 (B) | c | 70-86 |
| | d | 87-102 |
| | c | 103-118 |
| 제3부분 (C) | e | 119-135 |
| | f | 136-151 |
| | e | 152-168 |
| | g | 169-184 |
| 연 결 구 | 184-192 | Gb - Eb 장조 |
| 제4부분 (A) | a | 193-204 |
| | b | 205-224 |
| | a | 225-242 |
| 코 다 | 243-311 | Eb 장조 |

9)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제4권, 308-309쪽.

10) 왈츠의 배열은 태림출판사의 쇼팽 피아노곡집 제3권에 따른 것이다.

서주부는 Eb 장조의 딸림음인 bb의 반복음들이 강렬한 악센트와 함께 4마디 반복음으로 시작한다. 제1부분은 2부 형식(a-b)으로 나타나는데, 마디 38부터 나타나는 a-b부분은 첫 번째 a-b의 반복부이다. 각 부분은 16마디로 구성되며 a의 조성은 Eb 장조, b는 Ab 장조로 진행한다. 제2부분은 3부 형식(c-d-c)으로 c는 Db 장조, d는 Ab 장조로 진행한다. 제3부분은 e, f, g의 새로운 왈츠부분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e는 Db 장조, f는 bb 단조, g는 Gb 장조로 진행한다. 제4부분은 제1부분의 재현부이며, 코다는 a, b, f의 선율 진행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악곡 전체에 나타나는 조바꿈은 Eb 장조를 중심으로 3차 관계조인 Gb 장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조바꿈 방법은 1차 관계조 안에서 공통화음을 통한 음음계적 조바꿈을 이용하고 있으며, 반음계적 조바꿈은 한 번 나타난다. 조바꿈이 발생하는 곳은 하나의 왈츠가 끝나고 새로운 왈츠가 시작되는 부분이며, 하나의 왈츠가 전개되는 동안에 조바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은 왈츠들 사이에 발생하는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21-22

여기는 왈츠 a가 끝나고 왈츠 b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조바꿈은 아래와 같이 원조인 Eb 장조에서 5도 아래의 Ab 장조로 나타난다.

| | | | | | |
|-----|----------------|----|---------|----|----|
| | a | | b | | |
| | 19 | 20 | 21 | 22 | 23 |
| Eb; | V ⁷ | I | I-7b | I | |
| | | | Ab; V-7 | ↗ | |

마디 21의 첫째와 둘째 박은 Eb 장조의 으뜸화음(I)이며, 셋째 박은 으뜸화음에서 제7음을 반음 내린 7화음(I^{7b})으로 부속화음인 V⁷/IV이 된다. 이 화음은 Ab장조에서 딸림7화음(V⁷)이 된다.

• 마디 37-38

마디 38은 왈츠 b가 왈츠 a로 되돌아오는 부분으로 조바꿈은 Ab 장조에서 원조

인 Eb 장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에서 공통화음은 마디 37에서와 같이 Ab 장조의 I 과 vi의 제1전위는 Eb 장조에서 IV와 ii의 제1전위가 된다.

| | | | | | |
|-----|----------------|----|-----------------|-----------------|----|
| | b | | | a | |
| | 36 | 37 | | 38 | 39 |
| Ab; | V ⁷ | I | vi ⁶ | V ⁷ | I |
| | | | Eb; IV | ii ⁶ | ↗ |

• 마디 69-70

마디 69-70은 왈츠 b가 종지하고 왈츠 c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Ab 장조에서 Db 장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에서 공통화음은 아래 마디 69에서와 같이 Ab 장조의 으뜸화음은 Db 장조에서 딸림화음이 된다.

| | | | | | |
|-----|----------------|----|----------------|----|--|
| | b | | | c | |
| | 68 | 69 | 70- 71 | 72 | |
| Ab; | V ⁷ | I | V ⁷ | I | |
| | | | Db; V | ↗ | |

• 마디 86-87

마디 86-87은 왈츠 c가 종지하고 왈츠 d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Db 장조에서 Ab 장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에서 공통화음은 아래 마디 86에서와 같이 Db 장조의 으뜸화음(I)은 Db 장조에서 버금딸림화음(IV)이 된다.

| | | | | | |
|-----|----------------|----|-------|----------------|----|
| | c | | | d | |
| | 84 | 85 | 86 | 87 | 89 |
| Db; | V ⁷ | I | I | V ⁷ | I |
| | | | Ab;IV | ↗ | |

• 마디 135-136

마디 135-136은 왈츠 e가 종지하고 왈츠 f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Db 장조에서 bb 단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에서 공통화음은 아래 마디 136에서와 같이 Db 장조의 버금가온화음(vi)은 bb 단조에서 으뜸화음(i)이 된다.

| | | | | | |
|-----|-----|-------|----------------|-----|--|
| | e | | f | | |
| | 135 | 136 | 137 | 138 | |
| Db; | I | vi | V ⁷ | I | |
| | | bb; i | ↗ | | |

• 마디 168-169

마디 168-169는 왈츠 e가 종지하고 왈츠 g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Db 장조에서 Gb 장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에서 공통화음은 아래 마디 168에서와 같이 Db 장조의 으뜸화음(I)은 Db 장조에서 딸림화음(V)이 된다.

| | | | | | | | |
|-----|----------------|-----|-------|----------------|------------------------------|----------------|-----|
| | e | | g | | | | |
|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 Db; | V ⁷ | I | I | I ⁶ | ii ⁶ ₅ | V ⁷ | I |
| | | | Gb; V | ↗ | | | |

• 마디 183-193

이 부분은 왈츠 g가 종지하고 연결구 6마디를 거쳐 왈츠 a로 되돌아가는 부분으로 조성은 Gb 장조에서 eb 단조, 그리고 원조인 Eb 장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Gb 장조와 Eb 장조는 3차 관계조인 관계로 작곡자는 두개의 조성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6마디의 연결구를 Gb 장조의 나란한 조인 eb 단조를 이용하고 있다. 마디 184와 185에서와 같이 Gb 장조에서 eb 단조로 조바꿈은 반음계적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마디 191의 Eb 장조로 조바꿈은 딸림화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 | |
|--|-----|---------|--|-----|-----|-----|--|
| g | 연결구 | | | | a | | |
| 183 | 184 | 185-189 | 190 | 191 | 193 | 194 | |
| Gb; V ⁷ I V ⁷ /eb; → | | | I ₄ ⁶ V V ⁷ I | | | | |
| | | | Eb; V ↗ | | | | |

제2번 화려한 왈츠 Ab 장조 작품 34의 1

작품 34의 1은 <표2>에서와 같이 a, b, c, d, e의 5개로 구성되는 왈츠들이 A-B-A-코다의 3부 형식을 이루고 있다.

<표2> 화려한 대왈츠 Ab 장조 작품 34-1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 서 주 부 | 1-16 | Ab 장조 | |
| 제1부분 (A) | a | 17-32 | Ab, Eb 장조 |
| | b | 33-48 | Ab 장조 |
| | c | 49-65 | Db, Eb, Ab 장조 |
| | c1 | 65-79 | |
| 제2부분 (B) | d | 80-96 | Db 장조 |
| | d | 96-110 | |
| | e | 110-127 | bb 단조 |
| | d | 127-143 | Db 장조 |
| | c2 | 143-159 | Gb, Ab, Db 장조 |
| | c3 | 159-173 | |
| 제3부분 (A) | a | 174-188 | Ab, Eb 장조 |
| | b | 189-205 | Ab 장조 |
| | c | 205-240 | |
| 코 다 | 240-300 | Ab 장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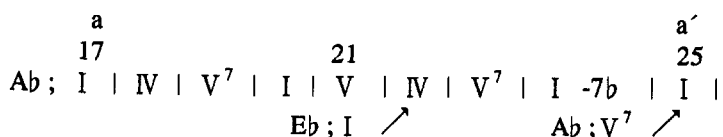
서주부는 16마디로 Ab 장조의 딸림7화음으로 진행한다. 제1부분(A)은 a, b, c의 왈츠가 연속적으로 진행하며 중심 조성은 Ab 장조이다. 제2부분(B)은 c, d, e의 왈

츠가 d-e-c의 순서로 나타나며 중심 조성은 Db 장조이다. 제3부분(A)은 제1부분의 반복이며, 코다는 왈츠 c의 셋잇단음표와 8분음표가 혼합되어 화려하게 전개된다.

악곡 전체에 나타나는 조바꿈은 원조인 Ab 장조를 중심으로 2차 관계조인 Gb 장조까지 나타난다. 조바꿈 방법은 대부분 1차 관계조 안에서 공통화음을 통한 음계적 조바꿈을 이용하고 있으나 반음계적 조바꿈도 4번 나타난다. 조바꿈이 발생하는 곳은 하나의 왈츠가 끝나고 새로운 왈츠가 시작되는 부분만 아니라 하나의 왈츠가 전개되는 동안에도 동형 진행에 의한 조바꿈이 발생한다. 다음은 왈츠들 사이에 발생하는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17-32

이 부분은 16마디로 구성되는 왈츠 a로 a(8)+a'(8)의 2부분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a와 a'는 동일한 선율과 화성으로 반복하고 있으나 a'에서는 꾸밈음과 비화성음들을 사용하여 약간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 a는 또 다시 마디 17-20, 21-24와 같이 2개의 악구로 분리되며, 이들은 Ab 장조와 Eb 장조의 조성으로 동형 진행을 형성한다. 조바꿈은 마디 21에서 발생하는데, 원조의 딸림화음은 새로운 조의 으뜸화음이 된다. 또한 마디 25에서는 원조로 복귀하는데 Eb 장조의 으뜸화음에서 제7음을 반음 내린 부속7화음(I^{7b})은 원조인 Ab장조에서 딸림7화음(V⁷)이 된다.



▪ 마디 49-65

마디 49-50은 왈츠 b가 종지하고 왈츠 c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Ab 장조에서 Db 장조로 조바꿈되고 있다. 공통화음은 아래 마디 49에서와 같이 Ab 장조의 으뜸화음(I)은 Db 장조에서 딸림화음(V)이 된다. 왈츠 c는 마디 61까지 3번의 조바

꿈에 의한 동형 진행으로 나타난다. Db 장조에서 Eb 장조(마디 53)는 반음계적 조바꿈, 그리고 Ab 장조(마디 57)의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한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 | | | | | | | | | |
|-------|----------------|--------------------|-------------------------|------------------------|--------------------|----|--|--|--|
| b | c | | | | | | | | |
| 49 | 50 | | 54 | | 57 | 58 | | | |
| Ab; I | V ⁷ | I V ⁷ | I V ⁷ /Eb; | → I V ⁷ | I V ⁷ | I | | | |
| Db; V | ↗ | | | | Ab; V | ↗ | | | |

• 마디 79-80

마디 79-80은 왈츠 d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Ab 장조에서 Db 장조로 조바꿈되고 있다. 공통화음은 위의 마디 49에서와 같이 Ab 장조의 으뜸화음(I)은 Db 장조에서 딸림화음(V)이 된다.

• 마디 111-112

마디 111-112는 e의 시작 부분으로 조성은 Db 장조에서 나란한 조인 bb 단조로 조바꿈되고 있다. 조바꿈은 음음계적 조바꿈이 아닌 반음계적 조바꿈으로 나타나는데, Db 장조의 제5음(딸림음)인 ab 음(마디 111)에서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마디 112의 a^b음(마디 112)은 bb 단조에서 제7음(이끌음)이 되어 V⁷의 구성음이 된다.

| | | |
|-------|---------------------|---------------------------------|
| d | e | |
| 111 | 112 | |
| Db; I | V ⁷ /bb; | → I ₄ ⁶ |

• 마디 127-128

마디 79-80은 왈츠 d로 되돌아가는 부분으로 조성은 bb 단조에서 Db 장조로 반음계적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반음계적으로 변화되는 음은 위 마디 111-127과 반대로 a^b-ab 으로 하행하여 V⁷의 구성음이 된다.

| | | |
|--------------------|----------------------|-------|
| e | d | |
| 127 | 128 | 130 |
| bb; V ⁷ | V ⁷ / Db; | → I |

• 마디 143-155

마디 143-144는 왈츠 d가 중지하고 왈츠 c로 돌아가는 부분으로 조성은 Db 장조에서 Gb 장조로 조바꿈되고 있다. 공통화음은 아래 마디 143에서와 같이 Db 장조의 으뜸화음(I)은 Gb 장조에서 딸림화음(V)이 된다. 왈츠 c는 마디 49-65에서와 같이 3번의 동형 진행으로 나타나지만 조성은 Gb 장조에서 Ab 장조, 그리고 Db 장조로 나타난다.

| | | | | | | | |
|---|-----|--|-----|--|---------|-----|--|
| d | c2 | | | | | | |
| 143 | 144 | | 148 | | 151 | 152 | |
| Db; I V ⁷ I V ₅ ⁶ I V ₅ ⁶ / Ab; → I V ₅ ⁶ I V ⁷ I | | | | | | | |
| Gb; V ↗ | | | | | Db; V ↗ | | |

제3번 화려한 왈츠 a단조 작품 34의 2

작품 34의 2는 <표 3>에서와 같이 a, b, c, d의 4개 왈츠들이 A-B-A-B-A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3> 화려한 대왈츠 a단조 작품 34-2의 조성 관계

| 구분 | 마디 | 조성 |
|---------|----|---------|
| 제1부분(A) | a | 1-16 |
| | b | 16-36 |
| | c | 36-52 |
| 제2부분(B) | d | 53-68 |
| | d1 | 69-84 |
| 제3부분(A) | b | 85-104 |
| | c | 104-120 |
| 제4부분(B) | d | 121-136 |
| | d1 | 137-152 |
| 제5부분(A) | a | 153-168 |
| | a1 | 169-188 |
| | a | 189-2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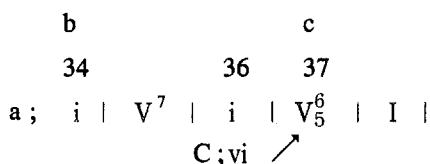
서주부와 코다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1부분(A)은 16마디로 구성되는 왈츠 a, b, c가 연속적으로 진행하며 중심 조성은 a단조이다. 제2부분(B)은 새로운 왈츠 d가 A

장조로 나타나며 이어서 왈츠 d1이 a단조에서 동형진행으로 나타난다. 제3부분은 제1부분을 반복하고 있으나 왈츠 a가 생략되어 있으며, 제4부분은 제2부분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제5부분은 왈츠 a가 2번 나타나고 있으며 a1은 왈츠 a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C장조, a단조, E장조로 진행한다.

악곡 전체에 나타나는 조바꿈은 원조인 Ab 장조를 중심으로 2차 관계조인 Gb 장조까지 나타난다. 조바꿈 방법은 대부분 1차 관계조 안에서 공통화음을 통한 음음계적 조바꿈을 이용하고 있으나 반음계적 조바꿈도 4번 나타난다. 조바꿈이 발생하는 곳은 하나의 왈츠가 끝나고 새로운 왈츠가 시작되는 부분만 아니라 하나의 왈츠가 전개되는 동안에도 동형 진행에 의한 조바꿈이 발생한다. 다음은 왈츠들 사이에 발생하는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36-37

이 부분은 왈츠 b가 끝나고 왈츠 c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a단조에서 C장조로 공통화음을 통한 조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디 36에서 a단조의 으뜸화음(i)은 C장조에서 버금가온화음(vi)이 된다.



• 마디 37-44

이 부분은 왈츠 c의 전반부 8마디로 마디 41에서 2개의 악구로 분리된다. 이 악구들은 동형 진행으로 나타나며 C장조와 a단조의 조성으로 동형 진행을 이루고 있다. 후반부 8마디(마디 45-52)는 왈츠 c의 전반부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마디 40의 셋째 박에서 C장조의 버금가온화음(vi)은 a단조에서 으뜸화음(i)이 된다. 후반부 8마디(마디 45-52)는 왈츠 c의 전반부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조바꿈은 마디 44에서와 같이 a단조의 iv⁷화음은 C장조에서 ii⁷화음이 된다.

c

| | | | | |
|--|--------|----|----------------------|----|
| 37 | 40 | 41 | 44 | 45 |
| C; V ₅ ⁶ I V ⁷ I vi V ⁷ i V ⁷ i iv ⁷ V ₅ ⁶ I | | | | |
| | a; i ↗ | | C; ii ⁷ ↗ | |

▪ 마디 52-53

이 부분은 왈츠 c가 끝나고 왈츠 d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a단조에서 같은 으뜸음조인 A장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은 마디 51에서와 같이 V⁷이 공통화음이 된다.

| | |
|---------------------------|---------------------|
| c | d |
| 50 | 51 52 53 |
| a; i V ⁷ I | |
| | A; V ⁷ ↗ |

▪ 마디 68-69

마디 68에서 중지하는 A장조의 왈츠 d는 마디 69에서 왈츠 d1이 동형진행으로 반복되는데 조성은 같은 으뜸음조인 a단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하지 않고 마디 69에서 으뜸화음의 제3음을 반음 내린 반음계적 조바꿈으로 진행한다.

| | |
|--------------------------------|-------|
| d | d1 |
| 67 | 68 69 |
| A; V ⁷ I a; i → | |

▪ 마디 169-188

이 부분(a1)은 왈츠 a의 오른손 반주형을 이용하여 전개되고 있다. 왼손 파트는 왈츠 a와 같이 주선율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오른손 파트의 화음을 기반으로 상·하행의 순차적인 선율진행과 분산화음으로 진행한다. 조성은 C-a-E로 진행한다. 마디 173에 나타나는 조바꿈은 반음계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마디 177에서 증6화음(French 6th)에서 해결된 a단조의 V 화음은 E장조에서 I 화음이 된다. 마디 187에서 E장조의 I 화음은 a단조의 V 화음이 되며 이 화음은 다음 마디 188에 I 화음으로 연결되면서 왈츠 a로 복귀한다.

a1 a
 169 - 172 173 175 177 179 -187 188
 C; V⁷ - I | a; V⁷ | i | Fr. 6 | V | V⁷ - I | i |
E; I ↗ a; V ↗

제4번 화려한 왈츠 F장조 작품 34의 3

제4번 왈츠는 작품 34의 2와 반대로 대단히 활기차고 밝은 곡이다. 전체는 <표 3>에서와 같이 a, b, c의 왈츠들이 A-B-C-A-코다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4> 화려한 대왈츠 F장조 작품 34-3의 조성 관계

| 구 분 | | 마 디 | 조 성 |
|---------|----|---------|-------|
| 서 주 부 | | 1-16 | F장조 |
| 제1부분(A) | a | 17-32 | F장조 |
| | a | 33-48 | |
| 제2부분(B) | b | 48-65 | Bb 장조 |
| | b | 65-81 | |
| 제3부분(C) | c | 82-97 | Bb 장조 |
| | c1 | 98-113 | |
| | c2 | 114-129 | |
| 제4부분(A) | a | 130-145 | F장조 |
| 코 다 | | 146-174 | F장조 |

서주부는 16마디로 F장조의 V⁷이 힘차게 연타되고 있다. 제1부분(A)은 16마디로 구성되는 왈츠 a가 F장조로 2번 연속하여 마디 48까지 진행한다. 제2부분(B)은 새로운 왈츠 b가 버금딸림조인 Bb 장조로 나타나며, 제3부분(C)은 왈츠 c가 Bb 장조와 Db 장조, 제4부분은 왈츠 a를 반복하고 있으며, 코다는 c의 음형을 이용하고 있다.

악곡의 조성은 1차 관계조인 F와 Bb 장조인 관계로 조바꿈 과정은 단순하다. 그러나 제3부분의 왈츠 c2의 조성은 Db 장조로 원조와는 4차 관계의 원격조이기 때문에 조바꿈은 반음계적 조바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제4부분의 시작은 앞의 곡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증6화음을 통한 조바꿈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제3부분과 제4부분에 나타나는 반음계적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113-114

이 부분은 왈츠 c1이 끝나고 왈츠 c2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Bb 장조에서 Db 장조로 반음계적 조바꿈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마디 113에서 Bb 장조 V의 구성음 f,a,c와 마디 114에서 Db 장조 V⁷의 구성음 ab, c, eb, gb 사이에 a-ab의 반음 진행에 의해 조바꿈이 나타난다.

| | | | | | |
|-----------------------|-----|-----|------------------------|-----|---|
| c1 | | c2 | | | |
| 112 | 113 | 114 | 115 | 116 | |
| Bb; V ⁷ /V | | V | V ⁷ / Db; → | | I |

• 마디 126-130

Db 장조의 왈츠 c2가 F장조의 왈츠 a로 복귀하는 부분이다. 원조로의 복귀는 왈츠 a가 시작하는 마디 130의 직전 마디가 아니라 왈츠 c2의 마디 125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디 124에서 Db의 I 화음(db, f, ab)은 마디 125에서 증6화음(db, f, g, bb)으로 진행하는데, 이 증6화음은 F장조에서 프랑스 6화음(Fr.⁶)이 된다.

| | | | | | | | |
|--|-------|-----|-------------------------|-----|--------------------|----------------|-----|
| | c2 | | | | | a | |
|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 | Db; I | | Fr. ⁶ / F; → | V | V ⁷ / V | V ⁷ | I |

제5번 Ab 장조 작품 42

왈츠 Ab 장조는 a,b,c,d,e의 5개 왈츠들이 4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성은 <표5>에 서와 같이 왈츠 e를 제외하면 전체가 Ab 장조로 진행된다.

<표5> Ab 장조 작품 42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서 주 부 | 1-8 | Ab 장조 |
| 제1부분 | a | 9-24 |
| | a1 | 25-40 |
| 제2부분 | b | 40-57 |
| | c | 57-72 |
| | b | 72-88 |
| | d | 89-104 |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 서 주 부 | 1-8 | Ab 장조 | |
| 제3부분 | b | 105-120 | Ab 장조 |
| | e | 121-136 | c단조, Ab 장조 |
| | e1 | 137-164 | |
| | b | 165-180 | Ab 장조 |
| 제4부분 | a | 181-209 | Ab 장조 |
| 코 다 | 210-289 | Ab 장조 | |

조바꿈은 제3부분의 마디 119와 마디 129 사이에서 발생한다. 원조인 Ab 장조와 c단조는 1차 관계조로 온음계적 조바꿈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증6화음을 통한 조바꿈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은 증6화음을 통한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119-129

이 부분은 왈츠 b가 끝나고 새로운 왈츠 e가 시작되는 곳이다. 마디 120에서 Ab 장조의 V⁷화음의 제2전위는 Ab 장조의 반중지를 형성하며, 다음 마디 121에 ab 음을 근음으로 하는 증6화음(ab, c, eb, f#)으로 진행한다. 이 증6화음은 c단조에서 독일 6화음(Ge.⁶)이 된다.

| | | | | | | | |
|---|-----|-----|-----|---------|-----|-----|-----|
| b | e | | | | | | |
| 119 | 120 | 121 | 123 | 124 | 126 | 127 | 129 |
| Ab; V ₃ ⁴ Ge. ⁶ /c; → V ⁷ i V ⁷ /ii V ⁷ /V V ⁷ I | | | | | | | |
| | | | | Ab; iii | ↗ | | |

제6번 Db 장조 작품 64-1

왈츠 Db 장조는 a,b,c의 왈츠들이 A-B-A의 3부 형식을 이루고 있다. 조바꿈은 <표6>에서와 같이 전체가 Db 장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표6> Db 장조 작품 64-1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서 주 부 | 1-4 | Db 장조 |
| 제1부분 (A) | a | 5-20 |
| | b | 21-37 |

| 구 분 | | 마 디 | 조 성 |
|-------------|----|---------|-------|
| 서 주 부 | | 1-4 | Db 장조 |
| 제2부분 (B) | c | 38-53 | Db 장조 |
| | c1 | 54-69 | |
| 연 결 구 | | 70-77 | Db 장조 |
| 제3부분 (A) | a | 78-93 | Db 장조 |
| | b | 94-109 | |
| | b1 | 110-125 | |

제7번 c# 단조 작품 64-2

제7번 c# 단조는 <표7>에서와 같이 a,b,c의 왈츠들이 A-B-A의 3부 형식을 이루고 있다.

<표7> c# 단조 작품 64-2의 조성 관계

| 구 분 | | 마 디 | 조 성 |
|-------------|---|---------|-------|
| 제1부분 (A) | a | 1-32 | c# 단조 |
| | b | 32-64 | |
| 제2부분 (B) | c | 64-95 | Db 장조 |
| | b | 96-127 | c# 단조 |
| 제3부분 (A) | a | 127-159 | c# 단조 |
| | b | 160-191 | |

제1부분(A)은 왈츠 a,b가 c# 단조의 조성으로 진행한다. 제2부분(B)은 새로운 왈츠 c와 왈츠 b가 나타나는데 왈츠 c의 조성은 판이름 한소리 조바꿈(Enharmonic modulation)에 의해 Db장조로 진행한다. 제3부분(A)은 제1부분을 동일하게 반복한다. 다음은 제2부분에 나타나는 판이름 한소리 조바꿈의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64-65

이 곳은 왈츠 b가 종지하고 왈츠 c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조성은 c# 단조에서 D b장조로 이동하고 있다. 마디 64에서 c# 단조의 i 화음의 근음(c#)과 제5음(g#)은 마디 65에서 Db장조 I 화음의 근음(db)과 제5음(ab)은 서로 판이름 한소리의 관계를 갖는다.

| | | | |
|-----|----------------|-----------|-------|
| | b | | c |
| | 63 | 64 | 65 |
| c#; | V ⁷ | i | Db; I |
| | | └ (en.) ┘ | |

제8번 Ab 장조 작품 64-3

왈츠 Ab 장조는 a,b,c의 왈츠들이 A-B-A-코다의 3부 형식을 이루고 있다. 조성은 <표8>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1부분(A)은 전체가 시작부 8마디의 왈츠 a를 근간으로 진행한다. 이 왈츠 a는 서로 다른 조성의 a1, a2, a3로 반복하는데, a3에서는 확대 발전되고 있다. 조성은 왈츠 a가 Ab 장조로 나타나며, a1은 f단조와 Eb 장조, a2는 bb 단조, a3는 Gb 과 Eb 장조로 나타난다. 제2부분(B)은 왈츠 b, c, c1으로 진행하며, 각각의 조성은 C장조와 f단조, 그리고 ab 단조로 나타난다. 제3부분(A)은 제1부분의 반복으로 왈츠 a2, a3 대신에 a4가 E장조와 F#장조, 그리고 Ab 장조로 나타난다.

<표8> Ab 장조 작품 64-3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제1부분 (A) | a | 1-8 Ab 장조 |
| | a1 | 9-16 f단조, Eb 장조 |
| | a | 17-24 Ab 장조 |
| | a1 | 25-32 f단조, Eb 장조 |
| | a2 | 33-40 bb 단조 |
| | a3 | 41-72 Gb, Eb 장조 |
| 제2부분 (B) | b | 73-92 C장조 |
| | c | 93-100 f 단조 |
| | c1 | 101-108 ab 단조 |
| 제3부분 (A) | a | 109-116 Ab 장조 |
| | a1 | 117-124 f단조, Eb 장조 |
| | a | 125-132 Ab 장조 |
| | a4 | 133-159 E, F#, Ab 장조 |
| 코 다 | 159-171 | Ab 장조 |

악곡 전체에 나타나는 조바꿈은 원조인 Ab 장조를 중심으로 2차 관계조인 Gb 장조까지 나타난다. 조바꿈이 발생하는 곳은 하나의 왈츠가 끝나고 새로운 왈츠가 시작되는 부분만 아니라 하나의 왈츠가 전개되는 동안에도 동형 진행에 의한 조바꿈이 발생한다. 다음은 왈츠들 사이에 발생하는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7-17

마디 7-9는 왈츠 a가 끝나고 왈츠 a1이 시작하는 곳으로 조성은 Ab 장조에서 f단조로 이동하며, 조바꿈은 반음계적 조바꿈으로 이루어진다. 마디 7에서 Ab 장조 V⁷화음의 근음 eb은 마디 8에서 f단조 V⁷화음의 제3음 ea로 반음계적인 변화를 통해 조바꿈이 발생한다.

| | | | | | | | | | | | | |
|--|---|---|---|----------|----|----|----|----|----|----|-----------|--|
| a | | | | a1 | | | | | | | a | |
| 5 | 6 | 7 | 8 | 9-10 | 11 | 12 | 13 | 15 | 16 | 17 | | |
| Ab; V ₃ ⁴ - ⁷ - ₃ ⁴ V ₅ ⁶ / f; i - ₄ ⁶ i ii ₅ ⁶ I ₄ ⁶ V ⁷ I-7b I | | | | | | | | | | | | |
| | | | | Eb; ii ↗ | | | | | | | Ab; V-7 ↗ | |

마디 9-16의 왈츠 a1은 <표8>에서와 같이 2개의 조성(f단조, Eb 장조)으로 진행된다. 조바꿈은 음음계적 조바꿈으로 마디 12에서 f단조 i 화음의 공통화음은 Eb 장조에서 ii 화음이 된다. 또한 마디 16-17은 왈츠 a1에서 왈츠 a로 복귀하는 곳으로 조성은 Eb 장조에서 원조인 Ab 장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마디 16에서 공통화음을 통한 음음계적 조바꿈으로 이루어지는데, Eb 장조의 I 화음에서 제7음을 반음 내리면 원조에서는 V⁷화음이 된다.

• 마디 32-33

이 부분은 왈츠 a1이 종지하고 왈츠 a2가 시작하는 곳으로 조성은 Eb 장조에서 2차 관계조인 bb 단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바꿈으로 진행한다.

| | | | | |
|--|----|----|----|----|
| a1 | | a2 | | |
| 31 | 32 | 33 | 34 | 35 |
| Eb; V ⁷ I bb; i → i ₄ ⁶ i | | | | |

• 마디 40-41

이 부분은 왈츠 a2에서 왈츠 a3이 시작하는 곳으로 조성은 bb 단조에서 1차 관계조인 Gb 장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마디 41에서 bb 단조의 VI 화음은 Gb 장조에서 I 화음이 된다.

| | | | | |
|-----|----------------|-------|-----------------------------|----|
| | a2 | a3 | | |
| | 40 | 41 | 42 | 43 |
| bb; | V ⁷ | VI | I ₄ ⁶ | I |
| | | Gb; I | ↗ | |

• 마디 48-49

이 부분은 왈츠 a3가 제2부분으로 진행하기 위해 확대되기 시작하는 곳으로 조성은 Gb 장조에서 Eb 장조로 이동한다. 이 조성들은 서로 3차 관계인 원격조이기 때문에 조바꿈은 반음계적으로 나타난다. 마디 48에서 Gb 장조 V⁷화음의 근음 db 은 마디 49에서 Eb 장조 V⁷화음의 제3음 db로 반음계적인 변화를 통해 조바꿈이 발생한다.

| | | | |
|-----|----------------|-----------------------------------|--------------------|
| | a3 | | |
| | 48 | 49 | 50 |
| Gb; | V ⁷ | V ₃ ⁴ / Eb; | → I ⁶ |

• 마디 62-63, 71-73

마디 62-62은 Eb 장조에서 나란한 조인 c단조로 조바꿈되는 곳으로 2개의 감7화음들이 판이름한소리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마디 62에서 Eb 장조의 d, f, ab, cb 음으로 구성되는 vii^{o7}과 마디 63에서 c단조의 b, d, f, ab 음으로 구성되는 vii^{o7}은 동일한 화음이 된다. 또한 마디 71-73은 c단조의 왈츠 a3에서 C장조의 왈츠 b가 시작하는 곳으로 공통화음은 마디 72에서와 같이 V 화음이 된다.

| | | | | | | | | | |
|-----|-------------------|----------------------------|-------|-------------------------------|---------------------------------|----------------|-------------------------------|-------|----|
| | a3 | | | | | | b | | |
| | 62 | 63-64 | 65 | 66 | 67-68 | 69 | 70 | 71-72 | 73 |
| Eb; | vii ^{o7} | = vii ^{o7} / c; | → i | ii ^{o6} ₅ | V - ⁴ / ₂ | i ⁶ | ii ^{o6} ₅ | V | I |
| | | | | | | | | C; V | ↗ |

• 마디 92-93

이 부분은 왈츠 b가 중지하고 왈츠 c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C장조에서 f단조로 이동한다. 마디 92에서 C장조의 I 화음은 f단조의 V 화음이 된다.

• 마디 100-109

왈츠 c의 마지막 마디 100에서 직접 조바꿈에 의해 ab단조로 변화된 왈츠 c1은 마디 108부터 부속감7화음을 사용하여 반음계적인 진행을 이룬다. 부속감7화음은 Bb장조와 Ab장조의 vii^{o7} 화음들인 a^{o7} 화음(ak, ck, eb, gb 음)과 g^{o7} 화음(g, bb, db, fb 음)으로, 이 화음들은 각 조의 으뜸화음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마디 108의 g단조에 대한 vii^{o7}은 으뜸화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Ab장조에서 딸림7화음의 제1전위로 진행한다.

| | | | | | | | | | |
|--|-----|-----|-----|-----|-----|--|--|-----|---|
| c | | | | | c1 | | | | a |
| 100 | 101 | 103 | 105 | 107 | 108 | | | 109 | |
| f; i ab; V ⁷ /V V ^{7,9} i V ^{7,9} vii ^{o7} / Bb → I vii ^{o7} / Ab → I I vii ^{o7} /g V ⁶ ₅ /Ab; → I I | | | | | | | | | |

• 마디 132-133

이 부분은 왈츠 a에서 왈츠 a4로 이동하는 곳으로, 마디 132에서 vi에 대한 부속7화음 C⁷은 마디 133에서 E장조의 I 인 E장3화음으로 반음계적 조바꿈을 이룬다.

| | | | | | | |
|---|-----|-----|---|--|-----|----|
| | | | a | | | a4 |
| 130 | 131 | 132 | | | 133 | |
| Ab; V ⁷ V ⁴ ₃ V ⁶ ₅ /vi E; I | | | | | | |

• 마디 133-140

이 부분은 왈츠 a4로 조성은 E, F#, Ab 장조로 진행한다. 마디 135에서 E장조 I의 제7음을 반음 내린 E⁷은 다음 마디 136에서 C#⁷으로 진행하면서 반음계적 조바꿈이 발생하는데, C#⁷은 F#장조에서 딸림7화음의 제1전위가 된다. F#장조는 마디 140에서 원조인 Ab장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은 마디 139에서 F#장조 I의 제7음을

반음 내린 F#⁷이 다음 마디에 Eb⁷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데, Eb⁷은 Ab장조에서 딸림7화음의 제1전위가 된다.

a
133 134 135 136 137 139 140 142
E; I | V₃⁴ | I-7b | V₅⁶ / F#; → | I | V₅⁶ | I-7b | Ab; V₅⁶ | V⁷ | I |

제9번 Ab 장조 작품 69-1

왈츠 Ab 장조는 제3부로 이루어지며 a,b,c,d의 왈츠풀이 나타난다. 조성은 <표 9>에서와 같이 왈츠 b를 제외하면 전체가 Ab 장조로 진행한다.

<표9> Ab 장조 작품 69-1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제1부분 | a | 1-16 |
| | a1 | 16-32 |
| | b | 33-48 |
| | a1 | 49-65 |
| 제2부분 | c | 65-81 |
| | d | 81-89 |
| | c | 89-97 |
| | d | 97-105 |
| | c | 105-113 |
| 제3부분 | a2 | 113-129 |

조바꿈은 마디 32와 마디 33 사이에서 공통화음을 통한 음음계적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마디 32에서 원조인 Ab 장조의 으뜸화음(I)은 Eb 장조에서 버금딸림화음(IV)이 된다.

a1 b
31 32 33 34
Ab; V⁷ | I | V₂⁴ | I⁶ |
Eb; IV ↗

제10번 bb 단조 작품 69-2

제10번 왈츠는 A-B-A의 3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A-B-A-C-A-B -A의 론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표10> bb 단조 작품 69-2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 제1부분 (A) | a | 1-16 | b단조 |
| | a1 | 17-32 | |
| | b | 33-48 | D장조 |
| | a2 | 49-65 | b단조 |
| 제2부분 (B) | c | 65-81 | B장조 |
| | c1 | 82-97 | B장조, b단조 |
| 제3부분 (C) | a | 98-113 | b단조 |
| | b | 114-129 | |
| | a2 | 130-145 | |

제1부분(A)은 16마디로 구성되는 왈츠 a와 a1은 b단조로, 왈츠 b는 나란한 조인 D장조로 진행한다. 제2부분(B)은 새로운 왈츠 c가 원조의 같은 으뜸음조인 B장조로, 제3부분(A)은 원조로 진행한다.

악곡의 조성 관계는 1차 관계조에서 나란한조와 같은 으뜸음조로 나타나며,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한 온음계적 조바꿈으로 이루어진다. 마디 32는 왈츠 a1이 종지하고 왈츠 b가 시작하는 곳으로 b단조의 으뜸화음(i)은 D장조에서 버금가온화음(vi)이 된다.

| | | | | |
|--------------------------------|----------------|-------|-----------------------------|----|
| a1 | | b | | |
| 31 | | 32 | 33 | 34 |
| b; i ₄ ⁶ | V ⁷ | i | V ₅ ⁶ | I |
| | | D; vi | ↗ | |

제11번 Gb 장조 작품 70-1

<표11> Gb 장조 작품 70-1의 조성 관계

| 구 분 | | 마 디 | 조 성 |
|------|----|-------|-------|
| 제1부분 | a | 1-16 | Gb 장조 |
| | a1 | 17-32 | Db 장조 |
| 제2부분 | b | 33-48 | Gb 장조 |
| | c | 48-56 | |
| | b | 57-64 | |
| | c | 65-72 | |
| | b | 73-80 | |
| 제3부분 | a | 81-96 | Gb 장조 |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한 은음계적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마디 16에서 원조인 Gb 장조의 으뜸화음(I)은 Db 장조에서 버금딸림화음(IV)이 된다. 마디 32는 왈츠 a1이 종지하고 왈츠 b가 시작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이 원조의 으뜸화음에서 제7음을 반음 내리면 Gb 장조에서 딸림7화음이 된다.

| | | |
|--------------------|--------------------|----|
| a1 | b | |
| 31 | 32 | 33 |
| Db; V ⁷ | I - 7b | I |
| | Gb; V ⁷ | ↗ |

제12번 f단조 작품 70-2

왈츠 f단조는 a,b의 왈츠들이 A-B의 2부 형식을 이루고 있다. 전체는 <표12>에서와 같이 4부분으로 분리되는데 제3,4부분은 제1,2부분을 반복하고 있다. 제1부분(A)은 왈츠 a와 a1이 f단조와 Ab, Eb 장조로 진행하며, 제2부분(B)은 왈츠 b, b1, b2는 Ab 장조와 c단조로 진행한다.

<표12> f단조 작품 70-2의 조성 관계

| 구분 | 마디 | 조성 | |
|-------------|----|---------|------------|
| 제1부분 (A) | a | 1-8 | f단조 |
| | a1 | 9-20 | Ab, Eb 장조 |
| | a | 21-28 | f단조 |
| | a1 | 29-40 | Ab, Eb 장조 |
| 제2부분 (B) | b | 40-48 | Ab 장조 |
| | b1 | 48-56 | Ab 장조, c단조 |
| | b | 57-64 | Ab 장조 |
| | b2 | 64-72 | |
| 제3부분 (A) | a | 72-80 | f단조 |
| | a1 | 81-92 | Ab, Eb 장조 |
| 제4부분 (B) | b | 92-100 | Ab 장조 |
| | b1 | 100-108 | Ab 장조, c단조 |
| | b | 109-117 | Ab 장조 |
| | b2 | 117-124 | |

악곡 전체에 나타나는 조성은 원조인 f단조를 중심으로 1차 관계조 안에서 온음계적 조바꿈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왈츠들 사이에 발생하는 조바꿈 과정을 보여준다.

• 마디 8-21

마디 8-9는 왈츠 a가 반종지하고 왈츠 a1이 시작하는 곳으로 조성은 f단조에서 Ab 장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f단조의 V 화음인 C장3화음이 Ab 장조의 I 화음인 Ab 장3화음으로 진행하면서 반음계적으로 이루어진다. a1은 Ab 장조로 진행하다가 마디 11에서 공통화음을 통한 온음계적 조바꿈으로 Eb 장조로 이동한다. f단조의 vi⁷과 Eb 장조의 ii⁷은 서로 공통화음이 된다. 마디 20은 왈츠 a1이 종지하고 왈츠 a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Eb 장조에서 원조인 f단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Eb 장조의 I 화음이 f단조의 V⁷로 진행하면서 반음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 | | | | | | | | | | | |
|---|----|----|----|----|----|----|----|--|--|--|----|---|
| a | a1 | | | | | | | | | | | a |
| 8 | 9 | 10 | 11 | 12 | 18 | 19 | 20 | | | | 21 | |
| f ; V Ab ; I - ₂ ⁴ vi ⁷ V ⁷ I vii ^{o7} V I ₄ ⁶ V ⁷ I V ⁷ / f ; → i | | | | | | | | | | | | |
| Eb ; ii ⁷ ↗ | | | | | | | | | | | | |

▪ 마디 40-41

마디 40은 a1이 종지하고 b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Eb 장조에서 Ab 장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온음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Eb 장조 I 화음의 공통화음은 Ab 장조에서 V가 된다.

| | | |
|-------|-----------------|--------------------------------|
| a1 | b | |
| 40 | 41 | 42 |
| Eb; I | ii ⁶ | ii ⁷ V ⁷ |
| Ab; V | ↗ | |

▪ 마디 50-57

마디 48-56은 왈츠 b1으로 조성은 Ab 장조로 진행한다. 이것은 마디 51에서 c단조로 조바꿈되는데, Ab 장조의 I 화음은 c단조의 VI 화음이 공통화음이 된다. 마디 56-57은 왈츠 b1이 종지하고 b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Ab 장조로 복귀한다. 조바꿈은 온음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마디 56에서 c단조의 I 화음은 Ab 장조에서 iii 화음이 공통화음이 된다.

| | | | | | | | |
|------------------------------------|---------|-------------------------------|-----------------------------|----------------|----|------------------------------|--------------------------------|
| b1 | | | | | b | | |
| 50 | 51 | 52 | | 56 | 57 | 58 | |
| Ab; ii ⁷ V ⁷ | I | ii ^{◦4} ₃ | i ⁶ ₄ | V ⁷ | i | ii ⁶ ₅ | ii ⁷ V ⁷ |
| | c; VI ↗ | | | Ab; iii ↗ | | | |

▪ 마디 72-73

이 부분은 b1이 종지하고 a가 시작되는 곳으로 조성은 Ab 장조에서 f단조로 이동한다. 조바꿈은 온음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Ab 장조 vi 화음은 f단조에서 i 화음이 된다.

| | | |
|--------------------|--------|-----------------------------|
| b1 | | a |
| 71 | 72 | 73 |
| Ab; V ⁷ | I - 5# | vi |
| | | i ⁴ ₂ |
| | | IV ⁶ |
| | | f; i ↗ |

제13번 D \flat 장조 작품 70-3

곡의 구성은 <표13>에서와 같이 A-B-A의 3부 형식으로 각 부분에 a,b,c,d의 왈츠들이 나타난다. 서주와 제1부분 D \flat 장조, 제2부분은 왈츠 c와 d가 G \flat 장조와 D \flat 장조로, 제3부분은 제1부분을 반복한다.

<표13> D \flat 장조 작품 70-3의 조성 관계

| 구 분 | | 마 | 조 성 |
|-------------|---|--------|--------------|
| 제1부분 (A) | a | 1-16 | D \flat 장조 |
| | b | 17-32 | |
| 제2부분 (B) | c | 33-49 | G \flat 장조 |
| | d | 50-58 | D \flat 장조 |
| | c | 59-74 | G \flat 장조 |
| 제3부분 (A) | a | 75-90 | D \flat 장조 |
| | b | 91-106 | |

악곡의 조성은 D \flat 과 G \flat 장조로 진행하며, 조바꿈은 공통화음을 통한 은음계적 조바꿈으로 이루어진다. 조바꿈 과정은 마디 32에서와 같이 D \flat 장조 I에 대해 4도 위인 버금딸림조 G \flat 장조에서의 공통화음은 V가 되며, G \flat 장조 I에 대해 5도 위의 딸림조 D \flat 에서 공통화음은 IV가 된다.

제14번 e단조

곡의 구성은 A-B-A-코다의 3부 형식으로 각 부분에 a,b,c,d의 왈츠들이 나타난다. <표14>에서와 같이 서주와 제1부분 왈츠 a,b의 조성은 e단조로 진행한다. 제2부분은 왈츠 c와 d가 E장조와 c \sharp 단조로 나타나며, 제3부분은 왈츠 a'가 원조로 나타난다.

<표14> e단조의 조성 관계

| 구 분 | 마 디 | 조 성 |
|-------------|---------|---------|
| 서 주 부 | 1-8 | e단조 |
| 제1부분 (A) | a | 9-24 |
| | b | 25-40 |
| | a | 41-57 |
| 제2부분 (B) | c | 58-74 |
| | d | 75-82 |
| | c | 83-99 |
| 제3부분 (A) | a' | 100-122 |
| 코 다 | 122-134 | e단조 |

악곡에 나타나는 조성 관계는 원조의 1차 관계조에서 같은 으뜸음조와 나란한조로 나타난다. 조바꿈은 <표14>에서와 같이 마디 57-59과 마디 74-75 부분에서 공통 화음을 통한 으뜸음계적 조바꿈과 반음계적 조바꿈을 통해 이루어진다.

• 마디 57-59

이 곳은 왈츠 a가 종지하고 왈츠 c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조성은 e단조에서 E장조로 이동하고 있다. 마디 57에서 e단조의 i 화음은 마디 59에서 V⁷ 화음으로 진행하는데, 이 화음은 같은 으뜸음조인 E장조에서 동일한 공통 화음이 된다.

• 마디 74-75

이 곳은 왈츠 c가 종지하고 왈츠 d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조바꿈은 반음계적 조바꿈으로 이루어진다. 마디 74에서 E장조 i 화음의 제5음 b는 마디 75에서 c# 단조 V 화음의 제3음 b#으로 반음계적인 변화를 통해 조바꿈이 발생한다.

| | | | | |
|----|---------|---|-------|----|
| | c | | d | |
| | 74 | | 75-78 | 79 |
| e; | i c#; | V | i | |

IV. 끝내면서

이 글에서는 14개 왈츠 전체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조바꿈 형태들을 분석하였다. 논의된 조바꿈은 모두 60개로 이 가운데 온음계적 조바꿈은 37번, 반음계적 조바꿈은 22번, 그리고 만이름 한소리적 조바꿈은 1번 나타나고 있다.

온음계적 조바꿈은 근친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버금딸림조의 조바꿈이 15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딸림조의 조바꿈이 7번, 나란한조의 조바꿈이 6번, 같은 으뜸음조의 조바꿈이 4번 나타난다. 그밖에 장3도 아래의 장조로 조바꿈은 3번, 장3도 위의 단조와 장2도 아래의 조로 조바꿈은 각각 1번 나타난다. 반음계적 조바꿈은 거의 딸림7화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6화음을 통한 조바꿈도 2번 나타난다.

쇼팽은 화성에 있어서 19세기의 위대한 혁신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화성은 음악의 다른 모든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세의 다른 작곡가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반음계적인 화성 진행과 함께 나타나는 조바꿈에 대한 그의 기법은 그 당시로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세련된 울림을 표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홍인. 『화성』.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나운영. 『화성법』. 서울: 세광출판사, 1982.
 백병동. 『화성학』. 서울: 수문당, 1986.
 이영수. 『건반화성학』.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한만섭, 이민수. 『화성학연구』. 서울: 삼호출판사, 1992.
 최동선 역. 『화성법강의』. 서울: 삼호출판사, 1988.
 Danny, James. 서우석 역 『화성법』. 서울: 수문당, 1981.
 Gillespie, John. 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 Green, Douglass. 박경중 역. 『조성음악의 형식』. 서울: 삼호출판사, 1990.
- Ottoman, Robert. 박재열의 3인 공역. 『화성학』. 서울: 수문당, 1983.
- Piston, Walter. 최동선 역. 『화성학』. 서울: 태림출판사, 1986.
- Reger, Max. 이영조 역. 『전조의 연구』. 서울: 수문당, 1982.
- Shir-Cliff, Justine. 이건용 역. 『반음계적 화성법』. 서울: 세광출판사, 1982.
- Stein, Leon. 박재열 역. 『음악형식의 분석 연구』. 서울: 세광출판사, 1982.
- Wedge, George. 오동일 역. 『응용화성학』. 서울: 세광출판사, 1993.
- .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 1976.
- . 『피아노 음악강좌』. 서울: 음악춘추사, 1992.
- . 『최신명곡해설전집』.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3.
- Apel, Willi. *Harvard Dictionary of Music*.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70.
- Beacox, Arthur. *Lessons in Harmony*. Ohio: A.G. Comings & Son, 1931.
- Harder, Paul. *Harmonic Materials in Tonal Music*. Boston: Allyn & Bacon, Inc., 1975.
- Hunt, Reginald. *Harmony at The Keyboar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Ratner, Leonard. *Harmon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2.
- Rimsky-Korsakov, Nicolai. trans. Achron, Joseph. *Practical Manual of Harmony*. New York: Carl Fischer, Inc., 1980.
- Sadie, Stanle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 Shumway, Stanley. *Harmony and Ear Training at The Keyboard*. Iowa: Wm. C. Brown Publishing Company, 1980.
- Spencer, Peter. *The Study of Form in Music*. New Jersey: Prentice Hall, 1988.
- Spencer, Peter. *The Practice of Harmony*. New Jersey: Prentice Hall, 1983.